

새싹불자 포교 "내일 밝다"

어린이지도자 연수교육 참여율 급증

어린이지도자 교육단체들이 개최하고 있는 연수교육에 교사와 법사님들의 참여가 대폭 늘어나는 등 새싹불자를 키우기 위한 열기가 뜨겁다. 이는 IMF체제 이후 어린이 포교가 시들해질 것이라는 연수회 주최측의 예상을 뛰어넘고 있는 현상이어서 교계에 신선한 관심을 끌고 있다.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회장 철오스님)가 6~7일까지 속리산 유스타운에서 개최한 제25차 전국 어린이지도자 연수회에는 전국 97개지역 8백50여명의 어린이지도자가 참석해 최대의 참가율을 기록했다.

이번 연수회에는 스님들이 25%나 참가했으며, 특히 매년 4~5명에 머물렀던 비구스님들도 50여명이나 참가해 어린이 포교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조계종포교사단과 천태종, 불교계어린이지도자연합회, 선재연구모임 등도 연수교육을 실시한다.

조계종포교사단(단장 성타스님)은 20~21일 화성 신홍사에서 어린이와 청소년 포교에 관심있는 1백여명의 포교사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한다. 포교사단은 워크숍을 이수한 포교사 4~5명을 소단위로 조직해 포교현장에 파견한다는 방침이다.

천태종(총무원장 운덕)은 7월 3일부터 5일까지 구인사에서 중단산하 55개사찰 1백30여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전국어린이 지도교사 연수회를 갖는다.

불교레크리에이션포교회(회장 법현스님)는 제21회 여름불교학교 지도자 강습회를 27, 28일 양일간 구룡사에서 개최했다. 포교회는 연수회에서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재미있는 우리 절'이 되도록 스님과 선생님들이 응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꾸민다. (02)738-7360

선재연구모임(회장 덕진스님)은 7월 4, 5일 개운사에서 제1회 선재청소년 지도자 연수회를 개최한다. 연수회에서는 △불경속의 청소년 △공동체놀이 △과학 등 강연도 열어 청소년 법회·여름 수련회 프로그램으로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김원우·김지연 기자(www.kim@buddhania.com)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는 6~7일 속리산 유스타운에서 어린이포교 확대를 위한 지도자 연수회를 가졌다.

사회복지공동모금법 '반대'

종교계 "민간활동 침해" 정부에 폐지 촉구

7월부터 발효되는 '사회복지 공동모금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불교계 종교계가 이법의 폐지를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불교조계종 서울가톨릭사 회복지회 대한성공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구세군 등 35개 종교단체는 최근 '공동모금법의 폐지 및 유보'를 청와대와 국회·복지부에 건의했다.

이들 단체는 의견서를 통해 △국회는 7월 이전에 공동모금법의 폐지 내지 시행유보를 결정하고 △복지부는 공동모금법 시행을 일단 유보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공동모금의 파급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공동모금법은 모금회의 예산과 사업계획 승인권, 임직원 해임권 등을 통해 정부가 다양한 형태로 개인·관리·지도·감독하게 규정해 민간자율성이 침해될 소지가 많고 민간주도 모금의 활성화라는 당초 입법취지도 살리기 어렵다"며 반대이유를 밝혔다.

이들 단체는 또 공동모금 활동이 전개되면 현재 종교계의 자선사업기금이나 개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후원금 수준을 감소시킬 우려가 크며 공동모금법이 무로 급식소나 지역이동시설 등 민간적으로 운영되는 제외해 문 제점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동모금법은 정부주도로 사회복지기금사업법에 따라 연말연시에 벌여온 불우이웃돕기 활동을 민간주도로 전환하고 연중 모금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작년 3월 국회에서 통과된 7월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김재경 기자

길음복지관 실직자 찾아나선다

건강검진·세탁·의복대여 등 서비스

서울 성북구 길음종합사회복지관(관장 제민스님)은 15일부터 연말까지 실직 노숙자들이 모여 있는 용산역 광장에서 '이동 사회복지관'을 운영한다. '이동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 서비스 절실하지만, 마음먹고 복지관을 찾아오기 힘든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서는 현장 복지서비스로, IMF관리체제로 인해 양산된 실직자를 위한 프로그램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어 타 복지관으로도 확대될 전망이다.

'이동 사회복지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이·미용서비스(주1회), 건강검진·세탁·의복대여·취업정보제공서비스 등. 복지관은 주1회 이상 건강검진 보

조 및 의뢰서비스를 제공한 전문인과 미용사, 인터넷 전문가, 세탁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 또한 노숙자들에게 의복을 제공할 후원자나 후원업체를 기다리고 있다.

박은아 사회복지사는 "노숙자들에게 가장 절실한 의뢰서비스는 물론 세탁·의뢰서비스는 여름철 위생에 취약한 노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길음복지관은 실직자 및 저소득 가정의 주부들에게 취업거리(수작업이 필요한 의류, 앨범, 문구류 등 포장 등)를 제공할 업체를 모집하고 있다. (02) 985-0161 김재경 기자

지난 17일 동안 서울 용산 미8군 사령부 영내에서 유일하게 한국불교 신령의 참 모습을 보여줬던 '미8군 법우회'가 존폐의 위기를 맞고 있다. 10여개월 동안 한 차례의 법회도 봉행되지 않았고 현재 법우회 회원으로 남아있는 회원들이 한 명도 없다.

이에 대해 이철우법사(호국원광사)는 "미군의 전체적인 예산 삭감 때문에 예산에 비해 지원금이 없어졌고, 미8군 당국의 불교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이 유를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법사는 지난해 10월 미8군 사령부로부터 어렵게 얻어낸 불교단체 '인가'를 지키기 위해 당시 5명의 회원이 남아있던 법우회 지도법사로 나섰다.

현재 미8군 사령부의 불교에 대한 이해도는 깊지 않은 것 같다. 이법사의 경우, 영내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신분증 발급조차 지극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 미8군에는 2명의 군종장교가 있지만 모두 기독교계이며 불교계는 한 명도 없다.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법우회 회원들은 카투사와 같은 한국인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회원들의 지도법사도 한국인이지만 미8군 영내에서 활동하는 단체로 미8군의 행정 절차를 따라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우회 활동을 위해

해국보훈의 달 값진희생 추모하고 빛남공훈 예우하자

매번 밝아야 하는 행정 속에서 미군측과 문제가 있을 때 대응하게 대처하는 힘들다. 미8군 법우회가 처해 있는 상황이 법우회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꺼져가는 미8군 법우회의 불꽃을 살리기 위해서는 미8군 사령부는 법사에게 출입증을 교부하고 불교계 군종장교를 영입하는 한편 자유로운 영내 수행·포교 활동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 육군 군종감찰과 국방부 군종실 등은 언어소통이 원활한 지도법사를 파견해 미8군과의 유연한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gobaou@buddhania.com)

겨져가는 미8군 법우회

은 21일 오후 3시30분부터 서울 장충단공원에서 남산 팔각정까지 오르는 '새로운 천년을 위한 평화대행진'을 개최한다.

행진코스는 3km로 참가자들이 1백m를 걸을 때마다 후원자로부터 1천원을 받아 기금을 마련하는 '워킹톤(Walk-A-Thon)'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재경 기자

서울역서 실직자돕기 모금

종교인과 연예인, 기업인, 학자가 15일 서울역광장에서 실직자 돕기 캠페인과 워킹톤을 열었다.

자비사(주지 상종) 주관으로 현인·명국환씨 등 원로연예인 10여명이 출연, 실직자를 위로하고 성금모금 동참을 호소했다. 김재경 기자

목천암 진입도로 개설 요청

조계종 제17교구본사 금산사(주지 도용)는 용담법 건설로 수몰된 진안군 용담면 목거리 소재 목천암 진입도로(1.2km)를 개설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8일 전북도청에 제출했다. 임연태 기자(ytlm@buddhania.com)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2년과정)

'98학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 1. 대학 개설 취지**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키 위해, 교계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13기생을 모집함.
- 2. 교과목 및 교수**

1년 교과목	근본불교·대승불교·비교종교론·불교사상론 인도불교사·종교불교사·한국불교사·유식사상·정토사상	무전장스님(본대학학장)·최봉수(동국대학교)·주명철(동국대학교) 정병조(동국대학교)·오국진(동국대학교)·박홍철(불교학연구소) 차자석(동국대학교)·김영배(동국대학교)·모주스님(동국대학교) 장휘욱(동국대학교)
2년 교과목	반야사상·법화사상·화엄사상·불교사회복지론 불교학개론·선종사상·불교미술·밀교사상·포교방법론	양도스님(교무원장)·권탄준(동국대학교)·보각스님(승가대학교) 권기중(동국대학교)·혜원스님(동국대학교)·윤열수(동국대학교) 종식스님(승가대학교)·한정섭(금강선원사장)
- 3.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고
정규반(100명) 통신반(50명)	불교를 적극 신봉하고자 하는 자	·입학원서 ·주민등록등본 1부 ·반영합판사진 3매	98년 6월 15일~ 98년 7월 30일 입학금 150,000원	서류전형 * 합격자 개별통보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불교회관 및 동산교육회관	통신반은 지방거주자 출석 수감이 어려운 지만 지원가능
- 4. 입학일시** 1998년 8월 1일(토) 오후 6시 (총무원 1층 불교회관)
- 5. 원서교부처**
 - 본대학 사무국(☎ 732-1206-8, FAX 732-1207) (우)110-170 서울 중로구 견지동 13번지
 - 서울 : 보련각(조계사암) ☎ 733-0333 ○ 부산 : 불서보급사 ☎ 246-4321
 - 대구 : 삼영불교서림 ☎ 425-4097 ○ 대전 : 보문서점 ☎ 257-0161
 - 광주 : 불일서점 ☎ 232-7542 ○ 제주 : 한라불교신문사 ☎ 55-2203

* 특전사항 : ○ 상기과정을 졸업한자는 포교사고시를 거쳐 조계종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자격

대한불교조계종 동산불교대학

대한불교 조계종 제9교구 본사

八公山 桐華寺 第23代 住持 晉山式

삼보에 일심 귀명의 예를 올립니다.

신록이 장관인 천지녹음의 향연 속에 교계 여러 대덕 큰스님과 내외귀빈을 모시고 동화사 제 23대 주지 性德 和尚의 진산식을 아래와 같이 봉행코자 합니다.

침정한 인연속에서 21C 한국불교의 발전과 중흥을 앞서 이끌며 천연한 법화를 꽃피워 갈 천년 대본찰 팔공산 동화사의 금번 진산 법석에 다망한 공사간에도 동참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길 바랍니다.

불기 2542년 6월

◆ 아 래 ◆

- ◎ 일시 : 불기 2542(1998)년 6월 22일(음 5월 28일) 월 오전 10시
- ◎ 장소 : 동화사 대웅전
- ◎ 문의 및 연락처 : (053)982-0101 ~ 2 (F)985-4405

大韓佛敎 曹溪宗 第 9 教區 本寺
八公山 桐華寺 住持 晉山式 奉行委員會